

## 참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



저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에게 예비하신 최고의 복을 주기 위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경영공학을 전공하고 한치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컴퓨터와 날마다 대하는 직업생활을 하게 되면서 당연히 꼼꼼하고 정확하게 일처리를 요하는 일들이 반복 되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내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을 받고 아니 받는 것도 내가 사람들에게 착하고 선하게 대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믿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건 제 의지와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고1때 폐결핵을 앓았었습니다. 그 때만 해도 폐결핵에 걸리면 모두 죽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몸무게가 급속도로 빠지고 밤에 잠을 잘때면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기력이 더욱 쇠잔해지고 있었습니다. 중간고사를 보는 날 아침이었는데도 그만 일어나질 못하고 말았습니다. 극도로 쇠잔해져서 잠이든 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뼉이었던 저를 불등고 죽는 병에 걸렸다고 저희 부모님은 온통 난리가 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일 울면서 이병원 저병원을 알아보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명동의 성모병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어머니는 병원에 있는 마리아상과 십자가를 보면서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딸을 살려달라고.

불교에만 매달리시던 엄마가 병원의 마리아와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때문에 마음이 이끌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렇게 매번 울면서 매달리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전 정말 천진하게 지냈습니다. 매 끼니때마다 주는 한 주먹씩이나 되는 약을 그저 영양제를 주시는가보다 뭐 그 정도로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먹곤 했습니다. 엄마는 울고 불고 난리인데도 정작 본인인 저는 병에 걸렸다는 생각조차 못해볼 정도로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단지 시험 보던 날 쓰러지는 바람에 중간고사를 망친 것만 내내 속 상해 하곤 했습니다. 엄마의 기도가 제겐 정말 평온한 마음으로 병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고 학교생활의 의욕까지 잃지 않게 지켜주었습니다.

6개월 후에 난 엄마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깨끗하게 완치되었습니다. 지금도 폐사전을 찍으면 그 때 앓았던 부분의 폐가 까맣게 나옵니다. 신체검사를 할때마다 정밀검사를 다시 받고 오라는 요청을 받곤 하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다시 재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적도 없도 없이 두아이도 낳고 기르면서 줄곧 건강하게 일도 병행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죽을 병에 걸린 저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이셨지만 저는 저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을 그때는 못알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보기 까지 무려 24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께 돌아 오기까지 참으로 많이도 기다리셨습니다.

병을 낳고도 교회에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후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집에 시집을 보내시고 또 14년을 기다리셨다가 제게 오셨습니다. 주말마다 신랑 따라서 교회는 다녔지만 오로지 주일날 목사님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는 사람 따라서 가게 된 부흥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04년

여름방학때 두아들 아이를 처음 외국에 보내게 되고 이제 아이들만 남겨놓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즈음이었습니다. 한번도 아이들과 떨어져 살아 본 적이 없는 데다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없는 외국에 초등4학년과 중3인 두 아이들만 남겨놓고 와야하는 일이 눈앞에 닥치자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어는 입도 병긋하지 못하는 아이들만 남겨놓고 와야 했으니깐요.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하늘 같지만 머나먼 외국에서 아이들에게 만일 무슨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정작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하늘까지 닿았지만 제가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의지와 철저한 계획을 믿고 살았지만 정작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아무계획도 의지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를 위한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엄마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제 자식을 위한 저의 기도도 받아주셨습니다. 예상치도 않았던 미국 본사발령을 추천받게 해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주일마다 아이들과 온가족이 함께 주일예배를 드릴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고도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저를 위해 주님은 그리도 오랜동안 참고 주님의 때를 위해 기다리셨습니다.



병을 앓고 있었을 때는 아침이 되어도 내힘으로 눈을 뜨고 일어날 수가 없었음을 기억합니다. 이젠 건강하게 일어나 하루를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기도로 하나님께 하루시작을 아뢰입니다. 매일 아침 제일 첫시간을 하나님과의 기도로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로 저희 어머니를 구원해 주시고 그 어머니는 제 동생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 가족의 연속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지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의 구원이라는 커다란 상급을 준비하고 정말로 오랜동안 기다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발견해 가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도 오랜 동안 참고 저희를 기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의 몇일동안의 기도가 눈앞에 당장 보여지기를 원하는 건 제가 아직도 하나님을 너무도 모른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2008년 5월 18일 김경희집사